



2018년 3월 4일(제865호) 시순 제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회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기쁨’, ‘화’, ‘슬픔’, ‘즐거움’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면 좋은 감정대로, 나쁜 감정이면 나쁜 감정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일깨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있어서 중살이로부터의 해방은 하느님 사랑의 원체험일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은 바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누구’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수월해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는 하느님 사랑은 사라져버렸고,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려고 만든 상징물들이 하느님의 사랑인 양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지막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동안 자리를 잘못 잡고 있던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자 사람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사랑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불신하고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이들에게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사순 시기를 통해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느님 사랑이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상(임미누엘) 신부
해군교육사(해군 교육사랑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탈출 20,1-17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 2 독 시

1코린 1,22-25

복음 본보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 음

요한 2,13-25

영 성 제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진리를 살다

제대에 성인의 유해 또는 유물을 모시는 관행은 1596년 교회법으로 확정되었으나, 지금은 성인의 유해와 상관없이 제대를 축성하여 사용합니다. 16세기까지 성체를 모시는 감실은 성당의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자리를 잡았지만, 16세기 이후 제대 위 또는 제대와 가까운 곳에 감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장식하기 위한 꽃, 초, 십자가를 위한 자리도 16세기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원래 초는 빛을 밝히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으며, 11세기 이후 제대 근처에 놓이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고, 꽃은 16세기 이후에나 제대에 놓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성당이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요, 또 그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제대인 까닭에 성당의 중심은 언제나 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돌로 만든 제대는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바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대가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수난을 드러낸다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는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성찬례를 거행함

제대와 감실의 관계

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구원의 계약을 갱신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는 주님의 최후 만찬, 하늘나라의 잔치가 거행되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미리 천상 잔치를 맛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제대입니다. 이처럼 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신도가 같이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제사가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당을 축성하는 예식 때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제대 축성입니다.

이처럼 제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대에 걸린 그림이나 조각, 그 위에 놓인 초나 제대 주위를 장식한 꽃을 보고 감탄하고, 제대 자체보다 여러 장식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요소들은 제대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세 말에나 제대 근처에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복 음 록 상



기준점

기준 하나를 세워 봅니다.

내 삶을 살피고 돌아 볼. 그리고 돌아 올.

기준점 하나를 세워봅니다.

상화이야기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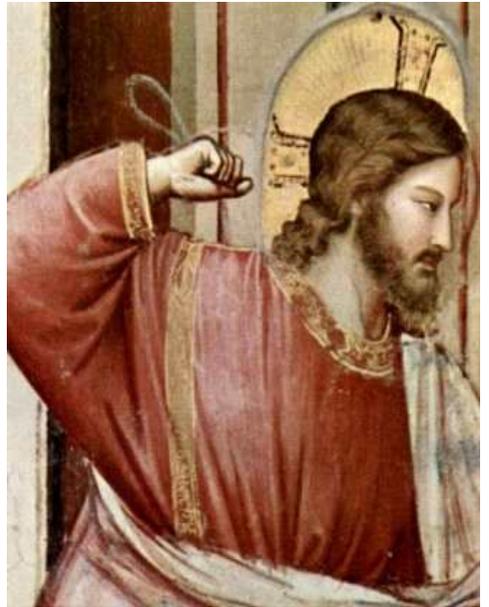
베르니르디노 메이(1605-1676)
1655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04.1 X 141 cm
클 게이티 미술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꾼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오늘의 복음 구절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한 상인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으시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휘두르고 계시며,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 짐을 챙겨 성전을 떠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아이는 예수님의 걸옷 자락을 감싸 안고 울고 있다.

비단 이 그림뿐만이 아니다. 지오토도 자신의 그림에서, 한 인물에게 주먹을 치켜든 예수님을 그렸다. 예수님의 옆얼굴에서 깊은 고뇌와 상심, 분노 등 복잡한 감정이 엿보인다.

김은혜(캘리시앗)



지오토(1267-1337)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피두아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3주일: 오뚜기 김대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성대(15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4일(주일)
- 주교회의 2018년 춘계 정기총회
 때·곳: 3월 5일(월)-9일(금), CBCK
- 오뚜기(8사단) 성당 축성식 및 사목방문
 때: 3월 10일(토)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